

#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시 사무 일반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년에 단 한번만 진행되고, 수시가 아닌 정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물론이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대응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는 형식으로 갖는다.

“본인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행정행위다.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도 물론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시 사업 추진계획과도 직결된

다. 시민을 대리해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종 정보를 얻게 되는 사전 준비단계로 볼 수도 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부실’ 논란이 있었다. 자신들이 일하는 해당 기관의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 퇴사자인지 아닌지, 급여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해당 자료도 도착해 있었다. 기관의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시의회 자료 요구에 느닷없이 기관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동문서답’ 답변도 있었다. 중학교 수행평가 보고서만도 못한 자료 제출이었다. 기관장이나 실·국장 명의로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탄식이 의회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대목에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줬던 실·국과 기관에게는 깊은 양해를 구한다.

자료부실과 함께 ‘허위보고 및 답변’에 대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광주관광공사 운영 중인 DRT 광주투어버스 사업지시서에 따르면 직원 유니폼을 제작했다고 표기했는데, 증빙 사진은 올해가 아닌 8년 전 사진으로 확인됐다. 광주도 아닌 세종청사 출근버스 앞에서 촬영된 사진을 일부 인원만 편집해서 직원 유니폼 구입 근거로 제출한 것이다. 조작된

거짓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의회에 허위 보고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실·국장 및 기관 대표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팀장이 대답하도록 허용한다. 추진했던 업무나 계획 중인 업무를 알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될 텐데, 거의 습관적으로 다음 기회에 보고하겠다고 대응한다. 어떻게 해서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불과 3주 전, 광주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그와 같은 답변이 없었다는 점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급기야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자료 부실과 허위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다. 그들에게 되묻는다. 이번 광주시의회의 일정은 아는 것만 해도 되는 ‘업무보고’ 과정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기관을 상대로,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하는 부서를 상대로, 감사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다. 제대로 다시 준비토록 해서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재감사’를 결정한 것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옳다.

## 社說

# ‘장성 레몬’ 농업한계 뛰어넘는 계기 되길

### 삼서면 12농가 첫 출하 완료

장성에서 신소득 작물로 육성한 ‘장성 레몬’이 처음 수확돼 출하를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열대작물이 농가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장성 레몬’의 성공적인 출하가 기후변화에 신음하는 우리 농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장성 레몬’은 지난 2022년 전남도가 공모한 신소득원 원예특화단지 사업에 선정된 지 2년 만의 결실이다. 특히 장성 삼서면에 조성된 레몬 재배 단지는 지난해 전남도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 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것으로 12농가 3.9ha 규모로 내륙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장성군은 올해 예상 수확량이 7톤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략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확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는 수확량이 100톤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기후위기시대, 아열대작목은 농가

에게 새로운 기회다. 특화작목의 재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바나나부터 망고와 올리브, 커피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작목을 재배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아열대작목으로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산에 비해 값이 비싼데다, 시설비와 난방비, 묘목비 등 생산비 부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다. 과도한 난방비로 낭패를 본 농가도 상당수에 이른다. 우리 여건에 맞는 재배기술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성 레몬’의 성공은 의미가 크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안정적인 특화작목으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는데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다가올 아열대 작물의 시대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 재정난 겪는 광주FC 자생력부터 키워야

### 부채 55억원... 자동퇴출 위기

광주FC가 프로축구 무대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고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부채만 55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향후 1부리그에서 자동 퇴출될 위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FC 이사회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100억원으로는 구단 1년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24억원, 올해 3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주FC는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체류 비용, 외국인 선수 영입, 선수단 급여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FC는 대출 자금을 갚지 않아 이자 포함 55억원이 빚으로 남아 있다. 광주FC의 재정난 해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올해 2회 추경예산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른 비용 정산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예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광주FC는 4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광주시의 긴축에

산 탓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와중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구단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자립력을 높이기 위해 ‘K리그 재정건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보와 부채 상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구단은 2030년부터 K리그1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해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광주FC는 자체 수익으로는 연맹의 재정건전화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형편이다.

광주FC의 올해 자체 수익은 기업 후원 44억원, 관중 수입 8억원, 선수 이적료 10억원, 유니폼 판매수익 등 70억원 정도다. 선수단 운영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지원없이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긴축재정으로만 버틴다면 팀 성적 하락도 우려된다. 광주FC의 자생력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좋은 성적으로 광주FC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중 유치뿐 아니라 기업 후원과 유니폼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시급해 보인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의 레위토비라키라키 화산이 13일(현지시간) 폭발을 계속하며 화산재를 하늘 높이 내뿜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과 가까운 플로레스섬 레위토비라키라키 화산의 계속되는 화산 폭발로 호주와 뉴질랜드 항공사 등 몇몇 국제 항공사들이 발리섬으로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AP/뉴시스

### 서석대

시인 안도현의 대표작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연어라는 은유를 통해 인간이 겪어야 할 성장의 고통과 아픔을 그려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시적인 시련이나 존재의 의미가 삶의 이유라는 철학적 가르침도 안겨줬다. ‘나뭇잎들이 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거슬러 오르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다’, ‘알을 낳는 일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지도 중요해’ 같은 본문 속 대화들은 지금 읽어도 감동이다.

시인이 연어의 삶을 경이롭게 보는 것은 그들의 여정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2만km가 넘는 차가운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는 연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쏟아 내리는 폭포를 뛰어넘고 소용돌이와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기나긴 여행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연어도 부지기수다. 흔한 듯 싶은 연어의 모전회귀도 망망대해에서 방향하는 수많은 연어 가운데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잃지 않는 연어만 맞출 수 있는 희열인 셈이다.

1921년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루이스 터먼 교수가



10세 안팎의 청소년 1500명을 선발해 80년 동안 이들의 인생을 추적했다. 사람의 잠재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다. 당연히 초기에는 타고난 지능과 학습능력이 성공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IQ와 성공 간의 상관 관계가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 오히려 IQ가 높았던 집단에서 인생의 실패를 맞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성공도가 높았던 아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발견됐다. 창의력과 집중력, 끈기, 노력 등이었다.

14일 광주·전남에서 3만 787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52만 2670명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시험이 끝난 많은 수험생들은 바다로 나간 연어와 같이 버거운 짐을 벗어 던졌고, 동시에 폭포를 거슬러 올라야 하는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연어들의 행적처럼 인생에서 고통은 희망의 시작이다. 1921년 시작돼 1990년까지, 3대에 걸쳐 천재들의 종적연구를 수행했던 터먼 교수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성공의 잠재력은 지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함과 감성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제 바다로 나갈 수험생들, 희망의 출발점에선 그들이 꼭 새겨야 할 조언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